

## 12. 순천 운곡 대보름 액막이굿 인터뷰1

주제 : 순천운곡대보름액막이굿의 과거와 현재

대상 : 정동준(순천 운곡대보름액막이굿 보존회 회장)

윤기중(순천시 국악협회 고문)

일시 : 2022년 09월 01일(목) 17시

장소 : 월계당 한약국

참가자 : 배양순, 추성민, 전남숙, 김윤설



정동준(순천운곡액막이대보름굿 보존회 회장)



윤기중(한국국악협회 순천지부 고문)

(윤기중)

칠곡에 사는 저 박귀희 열아홉 살 때 판소리 배우겠다고 와서 선생님 오디션 본다고 왔는데 딱 들어보더니 오태석씨가 판소리 하지 말고 너 가야금 병창해! 그래서 만든 것이 세계적 명인을 만들었어.

(윤기중)

그런 분이 세상에 그런 분이 낙안서 태어나고 낙안에서 살았는데 순천시에서 그런 양반 전수관 하나 만들지를 못해. 이게 지금 박귀희 씨 제자들이 전국 가야금 병창을 전부 휩쓸고 있잖아. 수 놓고 있어 여기저기서 꽃피고 있어. 그런데 그 꽃의 근본 바탕이 순천이라는 걸! 못 내 보내고 있는 순천이 이게 이게 순천인가 문화 자랑하는.

(전남숙)

한 번 모시고 시장님 면담하러 가시죠!

(윤기중)

송만갑 씨가 이미 구례로 가져갔소, 잉! 근데 분명히 그분 자서전에 보는 보면 나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거기서 소년 시절을 보내었소이다. 보내었소이다. 그랬어요.

동네 친구들은 천자문이나 동문선습을 가슴에 끼고 관 쓴 훈장 집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소리를 좋아 한다고 동네 사는 박만순이라는 어른을 찾아가서 노래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쌍놈들은요 공부해야 소용없으니까 하지 말고 너는 노래나 해! 그럴 때야. 시절이 해야 소용없어.

(윤기중)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노래나 해서 벌어 먹고 살아. 그래서 박만순 어른한테 가서 공부했다는 그 내용을 볼 때. 와~~ 그 시절이 보여, 얼마나 서러우면 그것을 자기 자서전에다 그렇게 썼겠어. 마지막이다. 그랬어. 뭐 훗 날 내가 죽어 버들 방척 나무 밑에, 버들 나무 밑에 방척나무 밑에 내 무덤이 보이거든 지나가시다가 내 무덤을 보시거든 시절을 잘못 만나 태어난 명창 송만갑이가 저기 누워 있구나 라고 하시던지, 더 뜻이 있다면 차고 가던 술병을 따라서 한 잔 부어주시면 지하에 있는 내가 얼마나 좋으리까? 그 말이야. 너무너무 서러워 내가 죽으면 무덤도 없을거이다. 흔적도 없을 것이라고 예견을 한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무덤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알아보면 얼마나 좋겠네

(전남숙)

그때 당시에 신분이 굉장히 낮았나 봐요.

(윤기중)

판서들은 비서나 임금 한 번 독대를 하려면 엄청 어렵거든 몇칠 몇날부터 예약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양반은 이 예약이 필요 없어 필요한 대로야.

(정동준)

그 정도의 힘을 가진 게 예술이야!

(윤기중)

그래서 예술. 나는 문화와 예술은 힘이다. 국력이다.

(전남숙)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소리골남도에서 이제 만들어 봐야죠. 그 누구도 손 놓고 있는 걸 이제.

(정동준)

그걸 얘기를 해줄게. 순천이 승주군하고 순천시하고 갈라졌어. 여기 끝에 제일 처음에 순천이 순천시는 순천 이걸로 댔어요.

(정동준)

그랬는데 승주군에서 이 문화재 사업을 나간 데가 있어. 근데 월등의 달집 태우기 그거 전 국대회에 가서 문화부장관상을 받아. 그것은 승주군에서 바로 문화재를 만들어 주암 물보기굿 그것도 승주군으로 나갔어. 물보기굿도 역시 장관상 받았어. 자기들은 국무총리상 받았지만 장관상도 못 받아. 그런데 그거 또 문화재를 만들어 승주군에서 근데 순천시에는 정말로 나가 이거 대통령상을 받았어. 낙안에 이제 백중놀이 그걸 국무총리상을 받았어. 낙안의 백중놀이도 필시 없어서 버렸어. 이것도 나가 제일 처음에 전라남도로 신청을 했어. 문화재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 어느 정도 댔었던지 노인이 진정서를 냈어. 문제는 진정서 내면 절대 안 되거든 진정서를 내 갖고 도에서 나를 좀 올라오라 한게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김씨가 쪽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빠꾸되고 순천시에서 관심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윤기중)

방해 공작도 아무 소용 없어 순천시에서 정리만 해서 돼요.

(전남숙)

그렇죠 중요한 건 순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만들었으면 진작에 만들었을 텐데!

(정동준)

그래서 그때 아까 말한 고수대회도 나가 저 그냥 막 했을 때 순천 시장상 놓고 근데 바로 나가 7월달에 임기 받고 10월에 했어. 그 대회를 그러면서 내가 도로 올라가서 도에 가서 도지사상 꺼내고 도 자금 그때 오백만 원인가 얼마를 꺼내. 그래 갖고 그래서 쪽 보면서 차츰 차츰 하면서 그렇게 대통령상까지 내려고, 내가 대통령상을 놓고 대회를 두 번이나 세 번 했냐. 그리고 내가 물려줬어. 물려 줬는데 그 물려진 상 자체조차 지들이 서로 잘한다고 헌 바람에 없어져. 그리고 나가 다시 떠들어갔고.

(윤기중)

에메 이것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는 문화재로 돼 있는 것들.

(정동준)

웬만한 여기 갖고 있는.

(윤기중)

해서 그대로 원칙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문제는 얼만큼 기술적으로 짜 맞추느냐 이게 문제요. 요령이요.

(정동준)

하튼 시장을 내 마음대로 주물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면 해도~ 그렇게는 안 돼. 그러고는 .

(윤기중)

아. 그만 내두고 아까.

(배양순)

예예. 액막이.

(윤기중)

액막이를 두드려 이를 어떻게 이것을 나도 참 안타깝더라. 나는 진짜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 또 잘 모르고.

(전남숙)

순천 분 아니세요. 아니요.

(윤기중)

고흥에 있다 왔는데.

(전남숙)

하여튼 오늘 회장님이 운곡 액막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 낼 거 거든요.

(윤기중)

제도화해.

(전남숙)

돌아가셔도 이제 기록이 남을 거고 순천시민 누구나 다 찾아보고.

(정동준)

상사면지에는 나와 있을 거요.

(전남숙)

네. 그걸 저희들도 다 찾아봤어요.

(정동준)

그 봤어

(전남숙)

네. 다 찾아봤어요. 저희가

(정동준)

너무 그게 피다니. 그런데 그래도 이제 야. 그게 이제 즉 말하자면은 어느 때 누가 그걸 했다.

이것은 없었는지 몰라 분명히. 야 그것은 없을란지 몰라 뭐야 그 그것은.

(정동준)

그분이 고인이 돼버렸지만은. 거기맹이로 질로 뒤에 탐제를 모셨잖아요.

그러나 탐제를 제일로 처음에 모셨거든.

(전남숙)

옛날에는.

(정동준)

탐제가.

(전남숙)

가장 먼저였네요.

(정동준)

탐제를 제일 처음에 모시고 그다음에 디 디달방아.

(전남숙)

응. 가져와서 디달방아 제 모시고.

(정동준)

요요 오리 짐대는 짐대는 이제 그 무엇을 뜻한 거냐 하면 짐대 우에다 오리를 만들어 꼴았거든. 그것은 화재 동네 화재를.

(전남숙)

막기 위해서.

(정동준)

그 신이고, 그 짐대가 이제 디달방아는 그때 호열자병. 옛날에 호열자병이라고 했어. 무조

건.

(윤기중)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에 코로나 전염병.

(정동준)

그것이 오면 막 죽고 그랬어. 그런데 그것을 막는다. 즉 말하면 액막이 디딜방아를 했던 거고 이제 액막이 디딜방아를 이제 루제(이웃) 마을에 가서.

(정동준)

밤에 돌르면서 거기서 떼 갖고 딱 여자들이 떼고 와서 메면은 짚이 알아도 못 뺏어. 그걸 뺏으면은 그 병균이.

(전남숙)

그 집을 가부러.

(정동준)

주인이 알아도 서랍대기만 들리게 못 봤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고(매고) 오면은 이제 중간에 동네 청년들이 있다가 이제 받아서 같이 이 동네로 이고 와서 근데 그걸 여자들 뭐야. 속옷을 가랭이 하는 데다가 거꾸로 딱 씌워서 이 씌운(시운) 이유는 이제 얼른 말로 사람이 제일로 싫어한 것이 여자들 피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면은 귀신도.

(전남숙)

싫어할 것이다. 물러갈 것 도망갈 것이다.

(정동준)

도망 간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씌어놓고 이제 그다음에 그거 씌운 다음에는 그러니까 질로 처음에는 뭘고는 저 짐대 짐대를. 즉 말하자면 동네에서 짐대를 처음으로 세워. 짐대를 세운 다음에 이제 거석은 제사는 탐 제사는 보름 날 아침에 새벽에 지내고.

(전남숙)

그러면 짐대는 정월에 세우는 거예요.

(정동준)

그 때는

(전남숙)

보름 그때.

(정동준)

짐대를 세운디 이제 그 짐대를 언제 해 오는 거면. 시안에 시안에 산에 가서 쪼그던 이제 나무 그걸 딱 봐봤다가 인자 정월달에 표시해 가서 비 갖고 매고 온단말이야.

(전남숙)

그 벨 때 그 베로 가는 건 남자들이 가는 거죠! 목욕재계 다 하고 가는 거죠.

(정동준)

거석한 사람은 목욕재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신을 위해서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인자 그것은 빼버렸지만 그 산신에게.

(배양순)

이제 당산제 같은 것이 있더라고 원래는 당산제 모신 분들은 원래 이제.

(정동준)

그러면은 그래 갖고 비 갖고 이제 밀고 내려오는 소리가 있어. 이제 그러니까 그 밀고 내려오는 소리가 정말 하면.

(전남숙)

지금 혹시 기억나세요.

(정동준)

이거 거석이 책이 전부 다 있제. 미고 내려놓는 소리. 그게 그 소리는 그 미고 내려오는 소리가 모든 힘을 줄 수 있는 소리하지. 흠어지는 소리 이걸 안 돼.

(전남숙)

에헤루 달구(달구소리). 그거 아니잖아요.

(정동준)

짐대를 미고 올 때 그 소리가 안 돼.

(전남숙)

그런 소리가 없는 것 같더라.

(정동준)

그러니까 그것은 안 돼. 그건 흠어지는 소리여. 모든 힘이 아니여. 그야 위야허~~ 위야허~~. 이것이 모든 소리여.

(정동준)

그러니까 메고는 이제 그걸로 메고에 내려와서 이제, 동네 이제 딱 그래서 이제 오리를 만들어서 다 딱 그래갖고 이제.

(전남숙)

입구에다 마을 입구에다 세우는 거예요.

(정동준)

입구에다 세우면서 인자 그 세워놓고, 그 위에 오리는 오리는 옛날에 흉년이 들면 죽실을 먹고 살았어. 사람도 죽실을 먹었어. 지금 말하면 십년이 되면 대밭에 죽실이 열어 풍년이 되면 열어 지금도 죽실이 열 때가 있어. 지금

(전남숙)

한 번도 못 보고 꽃은 아니죠. 대나무 꽃.

(정동준)

꽃이 아니고 열매 나락 같은 열매가 쪽 열어. 그거 그 선암사 같은 데 가서 돼 있잖아. 그런 데는.

(전남숙)

열어요. 흉년이 들면 그 죽실이.

(정동준)

그 죽실을 오리 입에다 꼬자. 그러면 오리가 죽실을 먹고 산다고 그래 갖고 꼬자. 그래서

해놔 그러면 동네 화재를 그게 지금은 뭐 차로 그냥 소방서 이렇게 부를 거지만,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바가지 이런 거.

(전남숙)  
없는 거죠.

(정동준)  
그러니까 불나면 상당히 고약하지 그래서 동네 화재 같은 거 없애 불고 이제 탑은 탑은 상당히 거세게 그건 동네를 동네 사는 사람 전체를 지켜주는 탑이야 옛날에 지난 산짐승이 많이 있었잖아 네 그 탑이 없었다면 산짐승에 와서 동네 와서 사람을 해쳐

(전남숙)  
보니까 운곡이 참 골짜기던데.

(정동준)  
골짜기인데 사람 살기에 좋아. 이제 그러는데 이 탑을 딱 세워놓은 다음부터는 그런 큰 짐승이 여기 와서 동네서 침범을 못해.

(전남숙)  
우와 신기하네요. 효험이 있네요.

(정동준)  
그래서 그 탑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었어 그랬는데.

(윤기중)  
탑을 보면 두려워했다.

(전남숙)  
자기보다 커서요. 그렇지.

(윤가중)  
생각보다 무서워했다. 아니 동네에 무서워할 것이 없잖아.

(정동준)  
양이 약해 음이 세고 동네가. 그래서 음을 상징하려고 때려서 만들었어요.  
그 탑을 탑을 돌을 이렇게 딱 쌓아서 그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세웠어 세워서 두갑을 이렇게 딱 씌웠어.

(전남숙)  
두갑이요. 머리 모양이죠.

(정동준)  
머리 있는데다 이렇게 딱.

(정동준)  
그러면 이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자지 같은 이런.

(배양순)  
남근석.

(윤기중)

남자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정동준)

또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동네 절대 그걸 누가 손 대는 사람이 없어 손을 못 대.

(배양순)

신물.

(정동준)

손만 대면 그 사람이 풍진을 맞을게.

(전남숙)

그래요. 진짜 옛날에 그랬어요.

(정동준)

근데 6.25 때 나순경이라는 사람이 피망도 가는 거.

이렇게 가까이 한쪽에 떨어져 나갔어. 지금은 떨어져 나가는 쪽이 있어. 그런데 나순경 이라는 사람이 해그리네 칼 봉처를 갖고. 그게 다 해놓고 탁 갖고 그냥 탁 질렸어 탁 질렸는데 그럴 적에.

(전남숙)

머리.

(정동준)

머리를 맞고 죽고.

(전남숙)

나 순경.

(정동준)

나 순경.

(전남숙)

순사 이름 몰라 나 시성을 가진 순경이었구나.

(정동준)

응. 그런데 이제 그 사람 그때는 동네 경찰들이 와서 다 밤으로 지키거든. 밤으로 밤으로 경찰들이 반란군들 와서 있스께.

(정동준)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동네 개가 짖어 쏘게. 이제 반란군들은 아 저거 경찰들이 있구나 하고 알고는 그 집 대문이 있어. 대문이 대문 밖에서 딱 좀 버르고있어. 그런데 대문이 되논 게 열어 보도 못하고 이게 대문 옆에 담요 싸는 디로 요렇게 넘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한 머리 빨리 쑥으로 그냥 빵 쇠부렸어

(정동준)

그래갖고 나순경이 머리를 맞고 죽고 그 나순경이 죽으면서 칼빈를 갖고 있어서 총을 쏘 다섯 발이 대문을 뚫은 데가 지금도 있어 있어.

(배양순)

지 마음대로 건드렸다가

(정동준)

힘을 안 쓰게 그냥 이렇게 담 옆에가 그 안에 사람이 변소간을 지났어. 그전에는 변소간 갈 수가 없어.

(정동준)

정월에 이제 그거는 것도 안 오고 옛날에 했지. 누가 그걸 안 하고 혼자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 관심이 없는데 신이 있다는 것은 그걸 보고 우리가 느꼈.

(전남숙)

그때 당시요 지금은요 지금도 그 신이 계시는 거죠.

(정동준)

얼마 안 됐지. 그 사람 죽은 지.

(윤기중)

얼마 안 돼.

(정동준)

반란군들 뭐야 한참.

(정동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동네에서는 탑은 있지만 누가 지키지는 안 해도 신은 여기 들어 있고 그냥.

(전남숙)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정동준)

이렇게 하고 있지 근데 뭐 거석 지면 아까.

(정동준)

거석할려면은 그 모든 문헌의 말 같은 것은 거기서 다 나왔어. 책에 다 나왔어. 이렇게 그대로 하면 되고 순서 차별은 우리가 제일로 처음해 액막이 거 뭐냐.

(전남숙)

짐대를 먼저 세우고.

(정동준)

짐대 질로 대을 세웠고 그 다음에 디딜방아를 세우고 디딜방아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남숙)

탑석 감기.

(정동준)

그걸 하면서 줄로 그러니까 줄은 남녀를 갈라 갖고 있어. 그러면 여자 편에서 분명히 이기게 돼. 왜냐 아들 요. 그는 아들이 모정이 더 많아 부정 보다.

그러니까 모정한테로 가 붙어 버려. 아들이 아들이 그래서 애네가 이겨야 됐어. 그리고 그 애네가 이겨야 되고 이제. 이제 그러면 그 탑을 갖다가 이제 아 줄을 갖다가 탑에다가 이제

감아 그렇게 감으면 이제 남자 줄부터 앞에 감고 우에다가 암줄을 감아.

그렇게 이제 감아놓으면 왜 우에다 감느냐 그것도 이제 알아야 돼. 그거는 남자의 거서기 있기 담시 여자 손이 다른 것이 가면은 승해져 늘어나 그래서 우에다 감아.

(전남숙)

숫줄을 우에다 감는데.

(배양순)

밑에.

(전남숙)

아~~ 밑에다 감고 암줄을 우에다 감고.

(배양순)

그러니까 위에 대가리 쪽으로 암줄이 가게끔 합이 되게끔 합이.

(정동준)

가차온 데가 위에가 갑잡찬아. 그러니까.

(배양순)

네.

(정동준)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해서 줄을 그렇게 감는다. 이제 그리고 인자 그래서 이제 제일로 마지막으로 감고 이제 마지막에 그 탐줄을 감은 다음에는 이제 온 동민이 한 바탕 뛰고 놀면서 끝을 맺었서.

(전남숙)

네. 오방 그 액막이 있잖아요.

(정동준)

그동안 질로 처음에 그거 하면서 많이 싸웠네. 질로 처음에.

(정동준)

거년에 남도 문화재에서 1등한 팀이 전국 대회를 나가거든요.

근데 또 질로 처음에 전국대회를 나가라고 연락이 돼서 왔는데 한 며칠 있다가 순천은 금년에 나오지 말고 명년에 나오시오. 왜 그래야! 아무 때고 저기 이제.

(정동준)

진도 박지원이야 그때 문화부 장관을 문화부 장관 할 때 박지원이야 맞아. 박지원이야 딱 진도에 와서.

(윤기중)

얘기를 해놓은 거요.

(정동준)

전국대회에 나와라. 진도가 나와라.

(전남숙)

그때 뭐 강강술래 진도가 뭘로 나왔죠?

(정동준)

그때 안 나왔어. 그러니까 진도를 보내려고 도에서 딱 한 거야. 그러다가 도로 쫓아 올라갔어. 도에 가서 담당 직원하고 싸웠어. 왜? 어떤 팀은 그렇게 보내고 어떤 팀은 1년 쉬서 보내고 그거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해갔고, 그랬드만은 이제 지그도 생각을 해 본게 그러는 거 아니야. 한 사나흘 있으면 순천서.

(전남숙)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정동준)

그래갔고 순천서 했는데 또 해필 대구 허고 순천 거 맞셨네. 동점이 나와 그래 갖고 이제 선거를 해 선거는 다행히 순천이 한 표가 더 많아.

(전남숙)

저가 그때 20대 때. 그때 같이 이렇게 대회도 같이 나왔고, 그래서 같이 대통령상 받았거든요. 그러면요.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운곡 액맥이를 다시 이제 할 거예요.

저희들 팀이 배 선생님이랑 소리도 하고 풍물도 하면 지금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연회를 한다든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세요.

(정동준)

동네는 없어.

(전남숙)

네. 다 연세가 많이 드셔버리고 돌아가셨어요?

(정동준)

돌아가서 불고 동네엔 댕기도 못 한 사람들만 살고.

(전남숙)

지금 몇 분 정도 사시는 거예요. 동네에.

(정동준)

지금 한 30호 남짓 있을거야. 내가 그것도 동네 일볼 때 80호. 농가 비농가까지 전부 다 합해서 80호인데 지금도 한 30호.

(정동준)

중요한 거 그리고 전부 다 늙어가고. 고굴고굴해.

(배양순)

잠깐만 회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일단 정리할 게 있으니까 저희 중에 필요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마을에서 액맥이 곳을 과거에 실질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정동준)

그렇게 한토록 모아갖고 한 적은 없고.

(배양순)

간단간단하게 군데 군데 짐대도 세웠다가.

(정동준)

옛날에 동네분들 매구도 치고 그러잖아.

(배양순)

그러죠. 짐대도 세웠다 아침에 와서 짐대 세우고 저녁에 되면 디딜방아 액매기도 하고 또 전날 또 당제도 지내고 당산제도 지내고 이렇게 하셨다는 그게 혹시나 지금 정화수라도 하나 한 잔 떠놓고 이렇게 빌기도 하고 했던 게 언제쯤이 마지막.

(정동준)

빌었제.

(배양순)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언제까지 뭐 한 10년 된.

(정동준)

어렸을 때 때.

(배양순)

어렸을 때까지 하셨어요..

(배양순)

아니 80, 80년 전에 하고 못 했다는 거죠. 언제까지 대충?

(윤기중)

팔십 삼세요. 이 양반이.

(윤기중)

예를 들어서.

(배양순)

1940년도, 50년도 이때까지?

(정동준)

우리 초등학교.

(전남숙)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 했어요.

(전남숙)

영상이.

(정동준)

이거 탑에 잘 올리고 하는 것은 사진 찍었어. 국민학교까지 국민학교 다닐 때.

(전남숙)

국민학교 때 다니면 연도로 대충?

(정동준)

그러니까 6.25 직전이지.

(윤기중)

이게 41년생이니까. 거기서 10년으로 하면 50년대 중반까지 했다는 얘기에. 50년 55년 그 중반까지 했다는 얘기.

(배양순)

이 부분은 이제 이제 시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끊겼다는 이야기죠. 시대 문명이 바뀌면서 발전하면서 이제.

(윤기중)

끊기면서 이게 자꾸 좀 변해진 거지. 옛날 하는 방법에서 좀 약식으로.

(전남숙)

근거만 있고.

(배양순)

특별하게 뭐 그만둔 이유가 있지는? 마을 분들끼리 싸워갖고 그만하란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동준)

옛날에는 소개를 짝 나가버렸잖아. 골짜에 전부 다 동네가 전부 다 소개를 나가버려. 그래 갖고 그 시안에 가차 오면서 너무 방 얻어서 살아. 글다가 이제 낮에 낮에로 인자 들어가. 낮으로 동네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깐닥하다가 반란군들 만나면 쟁피가.

(배양순)

그러니까 딱 시내로 나와버리고.

(정동준)

그러니까 동네가 아무도 없어. 짝 소개해 버리고.

(배양순)

그런 시절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2천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으셨잖아요.

그거하고 동네에서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의 근처에서라도 혹시 공연을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동네에서는 못 하고 밖에서는 하시고 제가 가봤어요.

동네에서는 그런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사람들도 없고. 잊어버리게.

(배양순)

동네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렸을 때. 회장님 소시적에 그런 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그다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거의 없다고. 하도 이게 오래된 전 이야기네요.

(윤기중)

생존자는 이분뿐이다.

(배양순)

그래도 60년대나 70년대까지는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왔는데 그 전에 이제 했으니까.

(윤기중)

우리나라는 외침으로 인하여 말하자면 국란을 겪었잖아요.

예. 그 국란을 겪으면서 평온한 삶이 유지가 안 돼. 그런데 자꾸 우리 일반적 삶도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바뀌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외지로 나가버리고 막 편하게 못 사니.

(윤기중)

그런 것이 말하자면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흔적을 남겨놨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일 아닌가?

(전남숙)

그러죠.

(윤기중)

나는 그렇게 봐 그런 가운데.

(배양순)

2천년도에 제가 이제 책자를 보니까 상사 면지 이런 데를 찾아보니까요. 회장님이 어떤 유명한 국악인으로 회장님이 딱 올라왔어요. 저도 그래 읽어보고 참 놀랐어요. 국악협회 때 순천 지부장도 하고 한 게 한 두세 페이지 이렇게 사진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동준)

문두근이가 썼어.

(정동준)

대학교 순천 대학교. 제일대학교 교수 문두근.

(윤기중)

문예협회 회장하고 그랬어.

(배양순)

그때 그때 보니까 운곡마을에서 또 주민상, 자랑스러운 주민상 이것도 이제 받으셨다고. 동네에서. 그게 나왔더라고요.

(윤기중)

동네에서 받아. 면민의 상도 받아.

(배양순)

그 동네에서 마을분들이 이렇게.

(정동준)

동네 그 상은 그걸로 해서 상을 받은 거지. 육경문이 약간 많네. 그래 이제 동네에서 동민이 동민이 1등 해갖고 상편을 만들어. 그거 있고 지금도 있어. 또 그 다음에 면민이 윤면장이 있을 때 윤면장이 또 해서 상사면을 빛을 냈다 그래 갖고 해준 것이 있고, 또 전라남도에서 자랑스러운 도민의 상을 주어서 도민의 상을 받았고, 또 문공부 장관상을 또 받았고 그걸로 해서 상을 받은 거니까.

(전남숙)

집에 다 갖고 있죠.

(배양순)

한번 찍어봐야겠습니다. 집에 한번 가서 찍어서. 한번 시간 될 때 방문해서.

(정동준)

액막이 디딜방아. 시방 운곡다가 놔두고 갔는데.

(배양순)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상 받은 거요.

(정동준)

이게 대통령상으로 받은 것은 운곡 어디가 있는. 운곡에 내가 놔둔 것 같고 그것을 복사한 것은 여기도 한 놈이 있나!

(배양순)

제가 다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2천년도에 이제 운곡액막이 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여수 국악협회에 몸 담을 때 와서 김향순 선생님이랑 이렇게 악사로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수에서 어쩔 수 없이 여수에 있을 때라 그렇게 했어서 그런 상황들을 제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재연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때 당시에 보면 군인들. 연대 군인들이 와서 같이 남자들을 도와주고 해서 하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 작업을 잘은 몰랐어요.

저희들이 이 공연을 2011년도에 순천문화예술 대극장에서 이 공연에 있는 내용 디딜 방아 액막이 부분. 디딜 방아 소리 정도를 그대로 또 떼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게.

2000년도 그때 제가 농악 같이 했어요. 같이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게 굉장히 익숙한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악 협회가 어쨌든 솔직히 말이 많았고 또 어르신들이 또 왕성하게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고법 하시는 누구지? 이낙훈 선생님도 계시고 김몽석 선생님도 계시고 박영배 우리 전 지부장님도 계시고 또 회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조동점 지부장님 하도 많으셨어요.

저희같이 젊은 친구들이 뭐 이려고 저러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이게 운곡 액막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를 받아서 순천에 전수관을 지어놓고 그 안에 어떤. 메카가 돼서 순천 지역적인 국악 예술 활동이 그쪽 중심으로 이렇게 콘텐츠가 만들어져서 움직여야 되는데 진작 진작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어야 될 부분인데 안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계속 보니까 이 부분이 저도 이렇게 여쭙보니까 회장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리고 국악협회 내에서도 사고 지부 얘기도 들리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국악협회가 만들었으면 이미 만들어졌어야 되고 그리고 또.

(배양순)

운곡액막이 보존회가 지금 법인으로 돼 있죠! 회장님 사단법인이요. 그 부분을 살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회장님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든 젊은 친구들이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차피 회장님께서 스트레스 받고 이리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저희도 저희들이 회장님 살아계실 때 그리고 저희들이 하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어쨌든 해보려고 해야지 저희들도 한 번 접어버리면 저희 다음 세대가 가면 40대 30대 이쪽 세대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의원이 됐건 시장이 됐건 표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돼야 되고, 문화적인 어떤 자산이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지난 20년을 보면.

(배양순)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끼리 어쨌든 만들어서 모여서 도의원이 됐건 시의원이 됐건 정말 이러한 부분이 국악협회는 국악협회로 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운곡액막이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통 우리 문화 자원을 살려가지고 지역의 대표적인 어떤 걸 하나 만들어야겠다.

여수 가면 뭐가 있고 뭐가 뭐가 있고 광양 가면 전어 잡이 있고 뭐가 있고 많은데 순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국악인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양순)

설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운곡액막이이라고 하는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운곡마을에만 이게 줄다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탐석도 운곡에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대 세우는 것도 이쪽 이쪽 저 순천만 쪽에 가면 있었다라고 하는 별량 쪽에서도 있었다라는 자료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디딜방아 같은 경우도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 온 저희들의 전통 자산이거든요. 민속..

우리 서민들이 해왔던 마을 사람들의 집단적 주술 연행 형태들이 그게 그대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찾아보기 어렵고 유일하게 한다는 게 이제 고작 와온이나 해창 가면은 줄다리기 해가지고 매구도 한 번 하고 이게 말고. 이건 한편으로 소모적인 거거든요.

한 번 하고 그냥 농악대 불러가지고 줄만 이렇게 하고 마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과정 자체가 잘 어떻게 보면 40분에 맞춰서 짜여져 있지만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짐대를 갖다가 베고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복원을 해서 영상으로 남기고 자료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지역이 순천이 갖고 있던 민속 예술의 어떤 보람곳에 관한 충분한 자산으로서 기록도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일단 정리만 좀 잘해 놓으면 연행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끼리 이렇게 따로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연행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 받아가지고, 단 1천만 원이고 받아가지고 운곡액막이 보존에 관한 부분만 교육을 시켜서 보존회를 지금과 다르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저는 실패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국악협회 어떻게 보면 순수 국악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성과물이나 어떤 돈이 붙거나 어떤 게 생기면 이익적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면 꼭 자기가 거기에 포함돼야 된다. 자기가 맞지 않다. 자기가 못한다.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해코지 하고 약간 이런 득과 실의 관계 속에서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들이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니겠습니까?

(배양순)

회장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단체를 어쨌든 좀 살려가지고, 그 부분들은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작업을 해서든지 아니면 회원들을 정리를 해서 다시 이렇게 모아서 그분들한테 어쨌든 액막이가 살아나갈 수 있게끔 최소한의 방법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국악협회 회원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 또 저희도 한 6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을 해서 한 열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민들과 결합을 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가지고 액막이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과 소중함에 대해서 그분들이 갖고 계시면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봐요

괜히 사람 없다고 이쪽 써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거. 저는 한 6년 5~6년 보거든요.

지금 올해는 어떤 연구 작업으로 끝내놓고 내년에는 조금씩 그러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더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해왔는지를 복원을 시키는 게, 영상으로요 복원시키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정기적인 일정을 잡아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쪽.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배양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실체가 생기면서 이제 문화재 전문위원이 됐건 누가 됐건 모셔가지고 좀 더 내용들을 체계를 잡아가면은 순천에 정말 소중한 것일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야 뭐 그동안에 모르고 이렇게 와서 지금 현재. 다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거지만 그동안 이걸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왜 힘드셨을까 라는 걸 보면 조금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배양순)

저기 있었다고 하면 아마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고 이게 잘 움직이고 있다면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고 나도 한번 같이 가서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 소중한 자산 자체가 주암에 가면 물보기 곳이라고 하는 게 문화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월등하면은 달집 태우기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재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배양순)

운곡마을이 갖고 있는 공간 상황은 마을 집단 연희 방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운곡마을 자체가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례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서 충분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집단적인 연행 방식이나 연행 형태는 순천만이나 낙안읍성을 통해서 공간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복원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제가 운곡마을 출신도 아니고 순천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순천지역에서 할 것이고 이러한 문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승 되어져야 될 분명한 가치가 있고 예술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배양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는 또 그렇다고 해서 수준 높은 소리가 필요한 판소리처럼 수준 높은 소리를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통하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내에서 저는 또 이게 시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배워가면서 매주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이라도 장단하고 노래 이 부분들을 1년 내내 연중으로 학습을 진행하면서 그분들이 운곡 액막이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되면 같이 연행할 수 있게끔 회원으로 참여해서 그걸 복원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운곡마을에서도 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왜 하려고 하느냐.

운곡마을에 들어가 살 마음은 없고, 운곡마을에서 했던 걸 내가 그걸 공부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그분들이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게 아주 개인적으로 수준이 있고 바르게 잘 보존돼 있고 잘 정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저희 시대에서. 그래서 이제 조직에 관한 부분도 회장님께서 갖고 있는 조직 자체를 어쨌든 다시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또 그것 자체가 그대로 오롯이 있어야지 만이 그것이 그대로 그 보존회를 통해서 전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복원이라면 복원 및 재현이라는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기중)

방금 말한 대로 사장되기는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를 우리가 남겨서 계승하게끔. 계승이라는 말이 너무 광대하다면은 우리가 그 자체를 흔적이라도 한번 밝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국악인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윤기중)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많아요.

그러나 그건 과거고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근거를 해서 어쨌든 이걸 해야 할 일은

국악협회에서 해야 하니까 국악협회하고 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정동준)

이렇게 노력해.

(윤기중)

나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더 넓고 기억력이 더 사라지기 전에 하나라도 더 추려서 간추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참으로 좋겠고.

(윤기중)

그런 생각이 들어 사실 나는 운곡액막이 굿하고 전혀 거리가 참여도 못 했고 그 당시에 우리 남도국악제 1년에 한 번씩 나가면 바가지로 탈이 필요하다면 바가지 갖고 나서 내가 바가지 넣어가지고 탈도 만들어주고 하는 보조자 역할을 했으니까.

(윤기중)

하여튼 좋은 시간 됐고 좋은 자료를 앞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적립이 될 수 있도록 너무 흠어졌어. 없어. 놔두면 그냥 사장 돼버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뭔가 문헌이라도 나 생각도 그래 뭔가 문헌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후손들이 볼 때도 이런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묻혀져 가고, 버려져 가는 것을 허투로 아니하고 모아놨구나. 얘기라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배양순)

다음에 회장님 상장이 있으면 상장이나 상패 이 부분을 한번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는데요. 마을에도 한 번 더 가서 저희들이 마을을 한번 쪽 돌아보려고요. 예전에는 올봄에 연초에 갔을 때는 당산나무 어디에다가 집대를 세웠고 옛날에 어디다 세웠고.

(정동준)

그것만 보고 왔지 지난번에.

(배양순)

그냥 당산나무 암당산, 숫당산. 그리고 탐석 이렇게 해가지고 회장님 댁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마을 한번 이렇게 쪽 한번 걸어서 좀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준)

운곡이란 마을은 하나라도 퐁덩이 따로. 옛말이 애네를 내는 말이 놀기좋은 중똥. 일잘한다 국시댕이. 알고지고 구술똥. 궁구로 간다 당산물. 뚝 떨어졌다 지경. 날아든다 삼박꿈. 지금 이런 말이 있거든.

(배양순)

예

(정동준)

똥마동 그 말이. 이게.

(정동준)

지금이 낙안 넘어갔는데 그가 지금이거든 그 운곡 땅이에요.

전부 다 지금 이제 교통이 그렇게 막 어언 초곡 이런 사람들이 그까이 와서 농사 짓지. 운곡은 그거 싹 팔아버리고 이제 지금도 운곡이야 그래갖고.

(정동준)

이제 운곡 동네 똑 떨어지게 똑 떨어졌다. 지금 이런 옛날 무슨 말이 있어.

(윤기중)

진짜. 그리고 숨어 있는 원래 취지가 지역사회에 숨어 있는 문화예술을 발굴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 원래 취지가 그런데 이제 다 써먹다 본게 이것이 어디서 만들 것이 없어. 그런데.

(정동준)

그래도 기술자들은.

(윤기중)

그걸 기획해서 만든다고.

(정동준)

그런 것이 기술이야 쉽게 말해.

(윤기중)

요만하게 했던 것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극대화시켜서 우리 것으로 만들면 돼. 아까 말한 대로 흥길동도 어디 고향인 장성이라고 그러고 춘향이가 여기 곡성에서 심청이가 곡성에서 났다고 그러고 그런 세상에 있고 하니까 대동강 물도 팔아 먹는다..

(윤기중)

최소한도 문화재로 이렇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 엄청 복잡해. 그리고 유적이라는 것은 이걸 예를 들어 우리가 기억으로 전혀 찾을 수 없는 유적들을 찾아야 돼! 증거를 찾고 그 과정이 최초부터 시작된 근원지부터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돼.

근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전남숙)

그 이정현 그때 국회의원이 있을 때 그런 작업들이 통 안 됐어요?

(윤기중)

작업은 이제 말하자면 이정현 의원은 이제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담당 행정관한테 조 크를 한 거지. 해주라. 이거 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도 사실 자기들이 거기에만 전매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누가 직접 전선에 나서가지고 이 자료를 하나하나 모아다가 꿰매야 돼.

(전남숙)

그럴 사람도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그런.

(윤기중)

꿰매려고 보면 가다가 걸리고 걸리고 딱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운곡까지 갔다 왔잖아요.

발원지는 운곡이니까. 이제 운곡을 하는데 그거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그 할머니 말하자면 이런 양반들의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 이미 돌아가셨더라도 돌아가셨지만 그 행적은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이걸 어렵게 연결 연결해서 말하자면 그걸 이제 작품화 해 갖고 전남에서 1등을 하고 전국대회에 가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한다고 까지.

(전남숙)

그러면 그 돌아가신 할머니 그 후손들은 거기 동네에 살고 계세요?

(윤기중)

후손들이 살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김갑순 할머니다. 이렇게 딱 집을 동네에서 이게 이게 모두 놀이처럼 했던 거라서 막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방금 말한 대로 김갑순 할머니 그 양반이 주도해서 이렇게.

(윤기중)

직접 기획해서 만든 게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전부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관계로 해서 부딪히고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할라고 저 영옥 씨 우리 국악협회에 옛날에 있던 김영옥 씨가 무지무지 노력했어.

(윤기중)

김영옥 씨가 그래. 그리고 이제 이정현의원도 역시 그런 걸 보고 더구나 이제 호남이 자기가 집이고 우리 순천과 정치적으로 연관이 있고 그런게 뭔가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는 가졌는데 역시 장벽에 부딪혀서 연계가 어려웠다.

그런데 과거에는 솔직히 말해서요.

곡성이 누구 고향이라 그래! 심청 고향이라고 그래.

(전남숙)

지금 빼앗겼잖아요

(윤기중)

저 장성이 흥길동이 고향이라고 자기들이 이렇게도 만든다. 근거가 있는 이것도 못 만들어. 나는 그래서 안타깝다. 이게 행정이 좀 도와줘야 된다. 내가 목청을 높인 이유가 바로 그거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순천이 지금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제일로. 정원을 품은 순천. 이렇게 구호들을 외치지만 과거에는요! 문화와 예술을 자랑하는 순천은 그랬어요.

우리 순천은 원래가 구호가 문화와 예술을 자랑하는 청명한 순천. 그렇게 우리가 구호를 했어. 삼산이수가 맑게 흐르는 순천. 이런 식으로 구호를 했거든 과거에는.

(윤기중)

그런데 예술에 대한 솔직히 말해서 점수를 준다면 우리 순천의 행정의 예술에 대한 인식은 거의 제로에 가깝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